

# 안도 타다오 건축에 나타난 사색 공간의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 of the Speculation Space of Architecture find on Tadao Ando

김도이\* / Kim, Do-Yi

김주연\*\* / Kim, Joo-Yun

## Abstract

Construction space of Japan suggests the factor of speculation to human and reveals tradition. The speculation can be embodied in the aspect of space and human's mental aspect is expressed as a main factor of tradition space of Jap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expression characteristic of speculation space, shown in the architecture of modern architect, Tadao Ando, who succeeds the concept. His works surveyed through research contain the emotion of nature and human, which are traditional factors of Japan. Moreover, it is reinterpreted by modern space, delivers its function of space and physical factor to user and grants value to activity and behavior of user residing in the space. Users recognize movement, create new meaning of space and accept physical barrier in the space. In conclusion, it can be said that the space of speculation is not a simple visual thing but a frame of visual structure, which is invented for embodiment. The factors show the Japanese architecture, real and contemplating one, which is positive in real life and allows experience. Through the conditions above, the researcher can find the meaning from the aspect that modern architecture of Japan is planned on the basis of concept of speculation.

키워드 : 안도 타다오, 사색 공간, 공간구성

Keywords : Tadao Ando, Speculation, Space composition

## 1. 서론

### 1.1. 연구배경 및 목적

현시대는 세계화라는 흐름 속에서 획일적이고 균질화 된 문화가 빠르게 파급되어가는 양상을 보인다. 대중화된 취향들이 건축적 맥락과는 무관하게 프로그램화 되어 지고 있다. 특히 지역성이 결여된 건축공간들은 장소와 맥락에 정주하여 살아가는 인간의 의식이나 감정들을 담기에 많은 부족함이 보인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도 일본의 경우 고유의 특수성을 공간적 요소에 도입시키고자 노력하여 왔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자연과 인간이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그들의 문화에 함축된 요소들을 환경과 심리에 적용하는 공간구획 방법을 계승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일본 고유의 문화를 표상(表象)할 뿐만 아니라 그 공간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감성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

준다. 다양한 맥락적 요소들을 공간 계획에 적용시킴으로써 인간과 공간의 관계를 풍성하게 만들고, 정신적인 측면에서 편안함을 제공하여준다. 공간의 구성이 물질적 요소에 좌우된다면 장소의 구성은 분명히 비물질적 요소의 개입을 허락한다. 동양적 가치관에 근거하여 볼 때 이러한 비물질적 요소의 존재는 부정할 수 없으며, 특히 일본 전통의 가치관에 따르면 사색(思索)이라는 정신적 요소를 발견하게 된다. 즉, 일본의 건축공간은 사색이라는 요소를 통하여 인간에게 건축적 풍요로움을 제시해 주는 동시에 전통성을 발현시켜 준다. 사색이라는 개념은 공간적 차원에서 구현 가능하며, 일본 전통 공간의 주요소로서 인간의 심리적인 면을 표출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는 이러한 개념을 공간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현대 건축가 안도 타다오 건축에 나타난 사색공간의 표현특성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일본전통공간과 안도 다다오의 건축에 표현된 사

\* 정회원, 홍익대학교 대학원 공간디자인학과 석사

\*\* 정회원,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부교수

색적 요소에 관해 그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일본 전통건축문화의 특징과 구성요소를 문헌고찰을 통하여 분석하고 사색공간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의 범위를 안도 타다오의 작품으로 한정하고 그의 작품에 나타난 사색공간의 특징을 연구하였다.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색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일본 전통 건축에 나타난 공간의 특징을 고찰하고 사색공간의 요소들을 추출한다. 둘째, 안도 타다오의 공간과 사색의 관계를 살펴 본 후, 셋째, 안도 타다오의 작품 중 사색적 특징이 현저히 표출되는 공간을 선택하여 분석함으로써 일본의 전통건축과 현대 건축의 사색공간에 관한 상관관계 및 그 표현적 특성을 분석한다.

## 2. 사색 공간의 배경과 개념

### 2.1. 일본 전통 건축의 자연친화적 미학사상

일본 전통건축의 특징은 건물의 공간 배치와 시각적인 면을 고려한 건축의 디테일에서 나타난다. 선과 형태의 반복에서 오는 조화로움과 정적인 건축미는 건축의 내·외부에 동시에 적용되며 건물은 개방형의 구조를 취한다. 또한 자연 소재들의 사용은 환경 심리에 적용하는 일본 전통 건축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일본문화 미의식의 근간에는 자연친화적 미학사상이 본 주체였고, 전통 건축 공간의 구조적 형태는 제한된 공간에서의 연계성과 차별성이라는 특성을 기본으로 장방형의 벽면 구조를 보인다. 자연에 순응하는 수평적이고 의장의 특성이 간소화되어 재료와 구조, 비례의 디자인 요소로 표현된다.

일본 전통미사상의 기본 공간구분을 시대적으로 나누어 보면 중고 헤이안시대의 모노노아와레(ものあわれ), 중세의 유겐(幽玄), 근세의 사비(さび), 와비(わび)로 이어져 계승되어 내려왔다.<sup>1)</sup>

모노노아와레는 자연의 풍류와 인생, 예술 등에서 우러난 잔잔한 내면적 정취를 이야기한다. 유겐은 일본의 전통 예술인 고전연극에서 나타난 미의식중 하나로, 특별한 무대장치 없이 인물의 심리적인 내면세계를 축소의 행동으로 표현하여 공간의 범위를 최대화하려는 다소 역설적인 표현방식을 가지고 있다.

사비는 연륜에서 생긴 그윽한 멋으로 여운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미적가치가 드러난다. 그 속에 담겨진 아름다움을 찾고자 했던 일본만의 독특한 미적 가치적 모습을 보여준다.

와비는 검소하고 간결한 취향을 정형화시키며 정신적인 충족감이 생겨나 내면의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정교한 미를 드러내어준다.

이러한 표현성이 공간적 미의식과 함께 그 관계를 살펴보면,

1)박세정, 일본적 공간개념의 분석에 의한 실내공간 디자인 방법에 관한 연구, 건국대 석론, 2005, pp.12-15.

공간화 또는 물질화 되는 것에는 이미 일본이라는 사회 속에서 배출된 전통성, 추상성을 토대로 사색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전통공간에서는 내, 외부의 구별이 필요하지 않았고 시간과 공간, 물리적인 요소와 정신적인 것들이 상호 작용하여 공간속에 스며들어 제3의 공간으로 인식하였다.<sup>2)</sup>

<표 1> 일본 전통 건축의 공간적 특성

전통	외래문화수용 ⇒ 전통성과 특수성을 공존 ... 집약적, 배제적 표현
공간	건축의장특성 ⇒ 목구조 발전, 개방형 구조 ... 비대칭적, 수평적
특성	공간구조형태 ⇒ 장방향, 자연친화 ... 미학사상 내포

### 2.2. 일본 전통공간의 요소

#### (1) 자연적 공간 요소

일본에는 자연은 밖에 있는 것이라는 자연에 대한 근본적인 의식이 외연적으로 표현된 차경(借景)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정원에 그대로 도입할 때 사용한다.<sup>3)</sup> 차경은 일본의 조원술(造園術)의 하나로 자신의 공간에 정원의



<그림 1> 일본 전통정원-마쓰야

배후에 있는 산이나 바다, 사원의 건축물 등을 배경으로 끌어들이 의식이 확대된 정원을 고안한 것이다. 이와 반대로 축소화되고 상징화된 자연을 압축하여 도입시키는 축경 원리도 있다.

본래 일본은 무상(無常)자연의 개념으로, 자연을 건축으로부터 보이는 시각적인 가치로서가 아니라 건축에 시공간적인 질서를 부여했다. 그래서 건축도 변화하는 것처럼 유기적인 변화 속의 자연을 시간의 한정으로 정착시키는 것과 같이 의식적인 공간으로 인식하고 한정된 공간 안으로 끌어들인다. 결국 자연을 우주의 근원이라 생각하고 정신적인 세계, 인식적인 세계를 바라보고자 하였다.

#### (2) 심리적 공간 요소

일본 전통건축의 대표적인 심리적 공간 요소로는 다실(茶室, 스키야 數奇室)을 들 수 있다. 다실건축은 실제적인 삶을 위한 공간이 아니고, 심미적(審美的)인 삶을 위한 공간이었다.<sup>4)</sup> 이 장소는 한 칸짜리 작은 집으로 마당에 자리 잡은 단독적인 곳이다. 비대칭적인 구성을 지니며, 차노유(茶の湯:차를 끓여 마시는 행사)를 실천하고 비일상적인 경계에 위치하는 공간으로서 일본의 축소된 정신사상이 공유되는 비일상적인 공간이다. 다실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로지(露地)라는 정원을 거치게 되고,

2)권영걸, 한·중·일 전통공간의 조영정신과 방법에 관한 비교연구, 2001, 고려대박론, p.62.

3)이진민, 일본인테리어 디자인과 한국인테리어 디자인과의 상관성, 월간인테리어, 1999, p.12.

4)송미경, 일본의 전통다실의 변천과 현대 화풍 실내 양식의 변용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론, 2006, p.25.

이것은 두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이다.

일본의 묘지, 묘원은 죽은자를 기리는 장소이며 살아있는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얻는 산책의 장소로서, 마음의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삼라만상(森羅萬象)이 있는 장소이다. 이곳은 사색을 통해 삶의 내면과 만날 수 있는 자기 성찰적인 장소로서도 인식되어진 다양한 의식이 접목된 장소이다.

이러한 일본 장묘문화에서 파생되어 나온 다양한 형태의 묵상공간은 마음을 자연스럽게 몰입시켜 내면의 자아를 확립하거나 수행을 위해 정신집중을 하는 기능을 한다. 묵상과 관련된 일본의 문화에는 화도(華道 또는 花道), 서도(書道), 다도(茶道), 가도(歌道), 향도(香道)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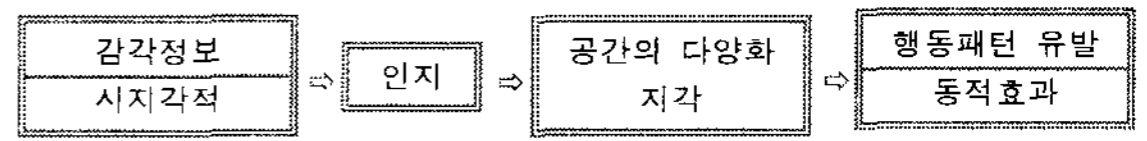
화도는 이미 완성되어 장신된 것들을 보며 미적인 측면을 즐기는 과정에서 그 자체를 정신적인 측면이나 수양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문화적 요소로 자리한다. 가도는 와카의 창작과 와카에 관한 학문을 연마하는 일, 서도는 중국에서 들어온 불경을 베끼는 일, 향도는 향나무를 피워 향기를 감상하거나 그 우열을 가리며 풍류를 즐기는 일을 말한다. 예를 중요시 여기는 묵상공간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들을 중시 여기며 공간적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에도 숨겨진 공간이나 음으로 가려진 공간들로 정착하게 된다.

### 2.3. 사색 공간의 개념

사색(Speculation)은 “어떤 것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이치를 따진다”<sup>5)</sup>는 의미이다.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명상(冥想, meditation)이 있는데, 이는 “눈을 감고 고요히 사색에 잠기는 것”<sup>6)</sup>을 의미한다. 이를 공간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자면, 사색은 공간 또는 건축과의 상호작용에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체험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반면, 명상은 어느 정도 공간과의 단절을 통하여 보다 차원 높은 초월상태를 추구하는 측면이 강하다. 즉, 명상이 ‘환경과의 단절’ 방법으로 삼는 반면, 사색은 ‘자연스러운 체험’을 방법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사색 공간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체험과 사색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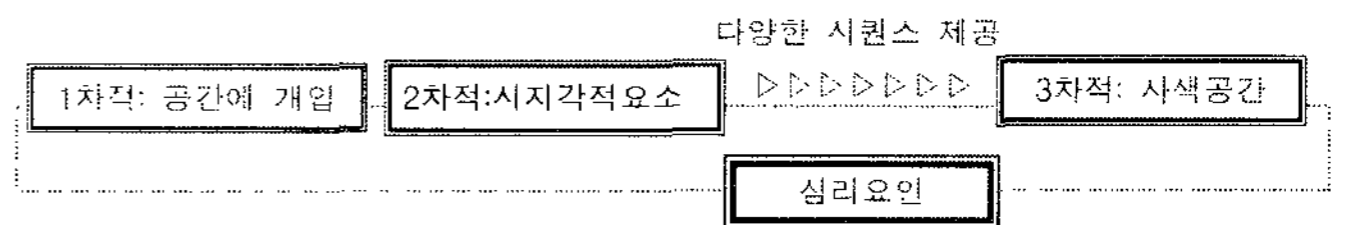
공간을 다루는 건축과 다른 예술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이동하는 가운데 체험한다는 것이다. 제비(B. Zevi)는 “건축의 특수한 성격은 3차원인 어휘 속에 인간을 포용하면서 작용함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건축은 인간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이해되는 거대한 속이 빈 조각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sup>7)</sup> 즉, 이용자의 움직임이라는 행위에 따라 다양한 장면의 경험이 가능할 것이며, 이는 인간의 사색이라는 인식작용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로 표현될 수 있다. 움직임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어 가는 공간의 장면적 요소들은 장소성과 시간성에 맞물려 인간에게 작용하여 심리적 변화를 이끌어낸다. 이러한 심리적 변화는 단순히 지각(知覺) 또는 인지(認知)의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적인 생각들을 밖으로 끌어낼 수 있게 하며, 공간은 이러한 작용의 매개체가 된다.



<그림 2> 공간 인지 과정

사색 공간은 1차적으로 공간에 사람이 개입함으로써 자신의 의지에 따라 공간을 인지하고, 2차적으로는 이런 감각적 요소에 심리적인 요인들을 접목시켜 체험하고, 3차적으로 자신의 구상력의 틀을 통해 공간을 바라보게 됨으로써 가능해진다. 즉, 본능적 감각에 의해 어떠한 외부의 공간이나 물리적인 것을 통해 다양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이며, 시간에 따라 같은 장소라도 느끼는 감정이 달라지는 것이다. 결국 ‘공간적 사색’이란 공간적 자극을 통하여 개개인의 감성과 사고를 이끌어내는 것을 의미하며, ‘사색 공간’이란 이를 극대화 시키는 공간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사색 공간은 자체의 형식보다는 인간의 공간과 시각의 관계가 중요한 관건이 됨을 의미하며 이러한 관계는 물리적으로 시각구조의 틀이 매개한다.



<그림 3> 사색공간의 정의 과정

이러한 사색의 개념은 동양적 가치관속에서 더욱 강하게 발견된다. 전통적으로 일본인들은 심리적 안정성이 작용하여 정신수양이 가능한 곳에 공간을 구성하려 노력 하였고, 동시에 산수가 뛰어난 위치를 선호하였다. 인간의 내면적인 요소와 문화적인 요소가 상호작용하여 만들어지는 사색 할 수 있는 공간을 추구한 것이다. 이러한 시각을 일본 전통건축에 적용하면 중요한 5가지 건축적 요소를 재발견할 수 있다.

① 공간에 소우주적인 것에 대한 축소 지향적 공간을 구성: 축경법과 차경을 사용하여 정원에 그 세계를 배치하고 공간장치에 내포된 모든 것들이 시지각적인 요소를 통해 내면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사색을 강조한 것을 볼 수 있다.

② 멈춤과 이끌림을 영위하는 영역성이 있는 공간을 구성: 집(宙)과 다실을 로지라는 공간이 연계해 주어 환기적인 공간 요소로 작용하며 미세하게 분할된 서로 다른 의미의 공간이 존재하여 모호한 경계를 나타내고 공간 안에 다양한 시퀀스를 통해 체험적 요소가 창조되어 표현된 것을 볼 수 있다.

③ 여정의미를 살린 체험 공간형성 : 일본 전통 공간적 특징 중 미의식적인 측면으로, 하나의 체험의 장(場)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공간을 형성시킨다. 또한 육체적인 체험뿐만 아니라

5)이희승,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수정판, 제8쇄 발행, 2008, p.1816.

6)이희승, Ibid, p.1245.

7)백종현, 빌라 라로쉬-잔네르에서 나타나는 '건축적 산책'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8권, 제2호, 1998, p.510.

정신적인 영역의 체험까지도 동반하여 무언가를 깨닫게 해주는 공간적 메시지인 것이다.

④ 내부 공간을 극대화함으로써 일부를 개방하는 공간을 구성: 폐쇄된 공간에서 특정 장소를 시각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일부를 개방하여 외부의 요소 등을 바라볼 수 있게 조성하고, 폐쇄되고 개방된 공간을 걸러줌으로써 극대화된 공간에서 한 차원 높게 빛의 음영을 느낄 수 있게 조성한 것을 말할 수 있다.

⑤ 사자(死者)를 추모하고 의식적으로 감춰지는 공간 형성: 추모 공간은 일본 고유의 종교적인 엄숙함과 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포켓공간을 구성하여 의미를 부여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장소로써 사색을 강조한 것을 특징적으로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 전통건축에서 공간에 관한 접근 중 사색공간의 특성으로 보이는 몇 가지 견지가 있었다. 이 전통적 요소를 크게 나누어 보면 자연과 공간, 그리고 일본의 의식적인 측면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는 일본 전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궁극의 공간, 또는 사색공간에 대한 탐구로 압축된다.

<표 2> 다섯 가지 전통공간의 표현형식과 개념특성

분류	전통 공간	표현 형식	개념 특성
자연	정원	지센식, 로지, 가레산스이식	자연적 요소, 축소 지향적, 회유식
공간	다실[外]	로 지	멈춤·이끌림, 연속적 경험, 환기의 작용
	의식[美]	모노노아와레, 유겐, 사비, 와비	내면적 정신, 여백의 미, 절제미, 은밀성
	다실[內]	개구부의 창양 방법	빛의 요소(陰/陽), 실 내·외 모호성
의식	장묘문화	공생 관계 [生/死]	의식적, 포켓적 이미지

### 3. 안도 타다오에게 사색의 의미

#### 3.1. 건축적 사색

안도의 건축은 노출콘크리트와 유리, 철을 주요 재료로 사용하고 모더니즘의 형태와 이론에 근거하고 있으며, 르 꼬르뷔제와 미스, 루이스 칸의 정신적인 건축성향과 건축기법이 그의 중심에 자리 잡았다. 그러면서 그는 모더니즘이 중시하지 않았던 지역성에 대해 깊이 고찰한 후, 일본이라는 태두리를 깊이 생각하게 된다. 이때 단순히 건축양식의 기법과 기술적인 양상 등의 모습이 아니라 현시대가 가져야 될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된 계기에 의의를 두어야 한다.

안도는 사람에게 좀 더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인간을 위한 공간창조의 방향성을 강하게 표출한다. 그는 자신의 건축 목표인 추상성과 구상성을 동시에 획득하는 것에 기하학을 사용했고, 모더니즘의 균질성을 극복하고자 단순한 기하학의 질서에 비대칭적인 면을 사용하면서 깊이감과 전이를 이룰 수 있게 표현했다.

안도의 건축 외피는 단순하지만 내부의 것들은 비대칭성이나 미로처럼 얽혀 공간체험을 하는 이들에게 감각적인 재미를

선사한다. 건축공간안의 행태적 습성과 공간이 주는 구조적이며 기하학적인 것들의 낙차가 클수록 인간은 자극을 받게 된다. 이렇게 다양한 체험요소를 제시함으로써 인간의 정신에 관여하고, 계속해서 그 공유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안도 타다오의 건축적 사색공간의 모습이다.

#### 3.2. 공간적 사색

안도는 생활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쓸모없는 공간을 없애야한다<sup>8)</sup>고 주장했다. 이런 공간적 특징에는 중심의 공허, 즉 여백이 존재한다. 그 특징들은 빛과 침묵의 공존 안에 여백인 무(無)의 존재를 제시해준다. 공간은 정적이고 창조된 물(物)안에서 직접 체험하며 편안함을 느끼고, 무의 존재 안에 정신집중을 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안도는 기하학적인 공간 안에 빛과 어둠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공백의 미와 정신적인 평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면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전통사상인 간결한 미의식적 측면과 관련된 것이다. 즉, 공간의 물리적인 측면을 순화시켜 인간의 감성에 자극하고 사색할 수 있는 공간적 요소를 제시하는 것이다.

#### 3.3. 철학적 사색

안도는 건축과 자연, 인간이 서로 분리시킬 수 없는 일체화된 생활을 지향하는 동양적 사상을 바탕으로 그의 건축적 철학을 만들어 갔다.

또한 일본과 서양과의 관계를 비교와 차이를 구별함에 있어 선택적인 수용을 통해 일본 전통 문화에 융합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비판적 의식을 통해 개선 사항에 대해 고심의 결과로 일본 문화에 접목시킨다. 그는 건축과 자연의 관계에서 시간의 동시성을 공간에 부여했다. 일본건축의 이면에 담긴 철학을 모방이 아닌 정신과 감성적인 측면에서 계승하였고, 전통의 주재료인 목조건축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근대적 재료인 콘크리트와 철과의 기술을 결합함으로써 재현하려는 시도를 갖고 현재의 건축을 추구하고 있다.

그는 획일화된 모더니즘의 정체성을 결여하고 건축과 인간과의 관계를 전통적 사고를 끌어들이므로써 탈피하길 원했다. 그런 까닭에 그의 건축은 가장 일본적인 동시에 근대건축의 이념이 밀바탕이 되고, 그 둘을 원동력으로 삼아 충실하게 소화하고 현대건축을 구사하는 건축가로 일컬어지고 있다.

### 4. 안도 타다오 건축에 표현되는 사색 공간

#### 4.1. 사색 공간의 개념 요소 추출

일본 현대 건축은 현대기술에 의해 변형된 공간자체에 대한

8)황준 편저, 안도 다다오 그의 건축이야기, 미건사, p.139.



건축의 문제와 직면하는 현실에 적응하기에는 아직 그 적합성을 검증받지 못한 건축물로 화하거나, 개념적인 접근으로 형성된 공간에 만족해야 하는 경우를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안도는 전통의 공간감을 중요시하되 그 일반적 특성에 머물지 않고 현대시대에 적응해야 하는, 인간의 정신적인 측면을 어떻게 공간에 적용하여 편안함을 줄 수 있는지 고민한다.

그는 인간과 자연의 문제를 건축을 통해서 접근했고 그 근거로서 내면에 육체화한 일본인의 자연관을 생각했다.

이런 그의 생각은 재료적인 측면에서도 보인다. 안도는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네모난 상자 안에 일본전통의 사상적 배경을 공간에 표현했다. 그 안에는 일본의 전통 요소인 정원의 특수성들을 도입하여, 우회적 동선에 의한 공간적 체험을 소우주적 사상을 함축하고 둘러싸여진 것과 개방되어지는 것들 사이에서 완충시켜 표현했다. 또한 공간에 연속적인 경험을 이용자들에게 제시함으로써 공간과 외부와의 연계성을 나타냈고, 비움의 표현으로 인한 공간적 간결성도 표현했다.

안도는 빛의 도입으로 인해 시간의 흐름을 물리적인 면으로 체험할 수 있게 했으며, 이는 경계를 한정지음으로써 장소의 감각을 경험하게 하는 다양성을 위한 것이다. 안도 타다오는 전통의 공간감을 중요시하되 그 일반적 특성에 머물지 않는다.

그는 현대라는 시대에 적응해야 하는 인간의 정신적인 측면에 관하여 어떻게 공간에 적용하여 편안함을 줄 수 있는지에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표 3> 다섯 가지 전통공간으로부터의 사색요소 추출

전통 공간	공간 표현 방식	사색 요소
정원	미로성, 차단성, 함축성, 방향성	동선의 연속성
다실[外]	분절성, 연계성, 접속성	공간의 외계성
미(美)	차단성, 비움, 추상성, 간결성	극소의 표현성
다실[內]	빛의 강도, 투영성, 전이성	빛의 부유성
장묘문화	시간성, 개방성, 재생성, 차단성	영벽의 은유성

## 4.2. 안도 타다오 건축의 사색 공간 구성

안도의 건축에 있어서 단일한 하나의 공간 요소로서 건축물을 구성시키는 예는 극히 드물다. 그는 자연에 대해 자신이 지닌 원초적인 것들이 일본의 사상저변에서부터 나오고 그에 따른 독특한 감수성을 현대의 시대상과 견주어서 풀어가기를 원했다. 즉 물리적 측면의 것들과 자연적 측면의 것들이 서로 상호 작용되어 또 다른 공간이 창출되었다.<sup>9)</sup> 안도의 건축에 있어서 사색공간은 이와 같은 건축적 요소들의 긴밀한 관계로부터 출발한다.

### (1) 동선의 연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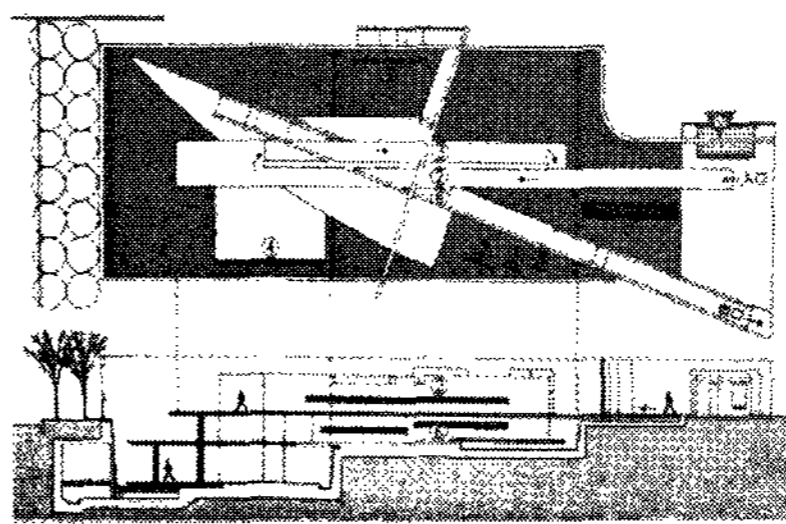
그의 건축은 외부 환경과 건물 내부를 서로 중첩시켜 '도

9)황준, Op. cit, p.120.

물리적인 협소함을 뛰어넘어 복잡한 공간구성으로 생기는 건축과 생활과의 깊은 관계, 자연과의 관계, 소재와의 접촉을 통해 삶에 대한 본질을 따지고, 살아있다는 실감을 인간이 몸으로 불러일으키는 그런 건축이 되게 하고 싶다고 안도는 말하였다.

(道)'의 공간을 도입하는 계획에 중점을 두었다.<sup>10)</sup> 이런 그의 사상적 배경은 명화의 전당(Garden of Fine Art)에 자세히 비추어 진다.

교토에 위치한 '명화의 전당'은 서양과 일본의 예술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옥외 미술관이다. 이 공간은 곳곳의 벽면에 모조품의 작품들을 설치하여 시선을 유도하고 자연이 서로 접촉하면서 만들어진 장소이다. 그로 인해 생기는 자연의 소리와 풍경들이 공간을 걸으면서 느껴지는 바람이 공간속을 거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자연에 대한 인식을 심어준다.



<그림 4> 명화의 전당 평면도, 입면도

공간 유도방식은 <그림 2>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하 2층의 깊이 3개의 벽이 서로 충돌하여 어긋나게 되어 있다. '진행의 연속성<sup>11)</sup>'은 조금씩 다른 높이를 지닌 벽들의 연속적인 겹침으로 인하여 점차적으로 깊어지는 공간적 구성을 취하며 그 방향성을 강조한다. 이 공간은 일본의 '회유식(回遊式)'정원<sup>12)</sup>의 특성으로 경로를 따라 움직이며, 공간 장면마다에 초점을 맞추어 공간분할이 각각의 모습과 동선이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구성하는 기법들이 보인다.

안도는 동선의 직선, 상승, 하강의 기법을 조직하면서 움직임 유도를 하고 시각적인 기법을 사용한다. 즉, 의도적인 시퀀스에 따라 공간이용자들에게 새로운 시선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또 명화의 전당은 수공간과 수벽을 도입하여 물이 지나는 시각적 청명함과 수벽에 박혀진 자갈들이 물의 마찰로 인한 청각적 시원함을 이용자들에게 필터의 역할로 제시한다.



<그림 5> 공간의 경로에 따르는 장면 변화

명화의 전당에서 느껴지는 사색은 시각에 의한 공간적 분할법과 공간적 연출법이 이용자들에게서 자신의 심리적인 요소들을 자연스럽게 들어냄으로써 공간과 인간의 심리성, 자연과의 삼위일체를 이루어낸다. 이 공간은 전통성에서 느껴지는 소우

10)이호정, 주거건축으로 본 근,현대 건축, 태림문화사, 2006, p.362.

11)임채진, 건축의 누드작가 안도 다다오, 살림, 2004, p.27.

12)회유식 정원이란 일본의 조경술의 한 부분으로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자연스럽게 경치를 감상한다는 뜻으로 어떤 경로를 선택했느냐에 따라 다양한 공간의 이미지를 볼 수 있다. 이 정원의 공간 구성은 자연요소를 적극 도입함으로써 정원의 그 변화폭이 넓어지고 물이 주는 시각적, 청각적 즐거움을 선사하며 산책하는 환경에 따라 다양한 장면마다의 시퀀스를 제공한다. 경험적 체험을 한 후 기억속의 장면들을 재구성함으로써 그 정원을 느끼게 해준다.

주적인 사상을 함축하여 공간을 표현하고 둘러싸여진 것과 개방되어지는 것들 사이에서 완충시켜 표현하였다.

(2) 공간의 외계성

나오시마 현대미술관(Naoshima Contemporary Art Museum Annex)은 지리적 요인으로 자연경관이 주를 이루며 환경전체를 다루고자 하는 점에서 대지예술(earth art)이라고 빗대어지기도 한다.

안도는 자연과 건물의 조화를 생각하여 기하학적인 인공미를 대지전체에 드러냄으로써 자연이 대비되는 효과를 활성화시킨다. 이 방법은 인간과의 관계를 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역발상적인 아이디어를 나타냈다. 이곳은 지리적 요인으로 바다를 바라볼 수 있고, 건축과 주위자연과의 이야기를 외계공간에서 주는 신선함으로 자연의 근원을 느낄 수가 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경계 요소들이 이용자들에게 몽상적이면서 초현실적인 사색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풍요로운 환경속에서 자연과 예술을 즐기며 도시에서 잃어버린 감성을 되찾을 수 있다.<sup>13)</sup>

공간의 분할은 자연과 조화될 수 있게 건물을 낮게 조정했으며 본관에는 자연적 가벽으로 인한 여유로움과 굴절로 인한 긴장감이 램프를 지나 자연스럽게 공간을 순회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이곳에서도 램프는 내부공간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보이던 공간과 외부와의 통로를 어프로치 상에 개입시킴으로써 자유로움과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최대화하고 있다.<sup>14)</sup>

안도의 작품은 건축을 자연과 인간의 중간에 위치시켜 자연의 실체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며 이면의 자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건축은 자연을 향하여 손을 뻗어, '생(生)'이 있는 것과의 접속 혹은 접합을 의도하고 있다. 건축과 자연이 융합된 그 전체야말로 비로소 건축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생명이 있는 자연도 아니고, 물질로서의 건축도 아닌, 그 사이에 떠도는 무엇이다. 그 두 개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란 이미 불가능하다. 오히려 그렇게 명백히 분단할 수 없는 경계(あわい)야말로, 지금의 안도의 건축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sup>15)</sup>



<그림 6> 나오시마 게스트 하우스 광경

나오시마 현대미술관은 공간과 자연과 인간의 중간체적인 요소로서 수(水) 공간을 공유하여 자연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느끼며 성찰할 수 있는 한 사례로 일본전통 미의식과 맞물려 드러난다. 이용자들은 내부공간과의 연결 공간, 즉 정념(情念)<sup>16)</sup>의 공간에서 풍요로운 환경

의 공간을 경험함으로써 자연을 느끼며 도시에서 잃어버린 감정의 메마름을 찾을 수 있는 치유공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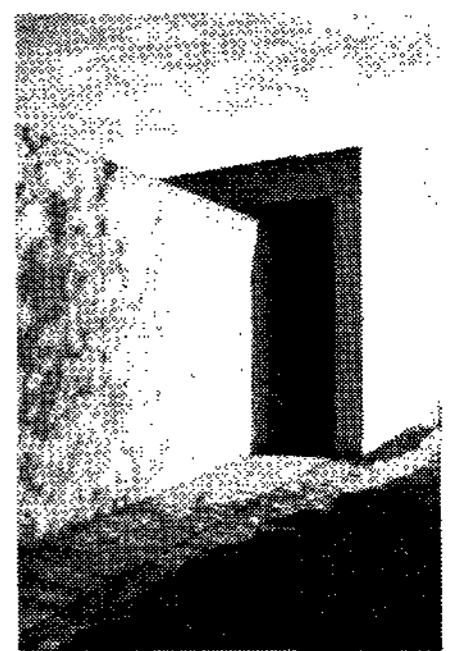
(3) 극소의 표현성

안도는 일본의 미의식을 일본뿐 아니라 세계 어디에 내놓더라도 전통공간의 고유의 향(香)을 제시하려했다. 그는 공간에 전통성을 도입하여 응축, 축소하며 과거의 감각과 현재의 재생성을 연계했다. 그 속에는 공백의 정신을 기려 여백의미를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의 정신적, 내면적 심성을 조용히 자극시키는 것이다.

건물이 지니는 내면적인 요소들은 물질적인 요소와 구성요소로써 결정된다. 물질적인 요소에는 구조적, 재료, 가구나 공간의 오브제로써 들어갈 수 있고 그 외의 구성요소들이 하나를 이루어 나타난다. 이때 공간의 특성과 더불어 흡수되면서 동시에 끊임없이 공간에 드러내는 특유성을 하나의 장소에서 보여준다. 일본의 미의식에서 발생된 공간들은 공간적 특성보다는 내면의 중요성을 더 강조했다. 따라서 장소의 추상성을 지닌 편안한 확신을 공간속에 들어냄으로써 하나의 장소가 되는 것이다.

이런 측면은 안도의 비트라 뮤지엄(Vitra Conference Pavilion)에도 나타나는데, 오브제의 중간단계에서 '담'이라는 전통적인 동양의 건축언어를 사용하여 안도만의 전이공간의 특성을 독특하게 드러낸다. 비트라 하우스의 진입은 한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폭의 길로 시작되며 그 담은 시각적인 제한을 주어 이용자들에게 공간 장면마다의 다양함을 준다. 이런 제한은 그 안에 내포된 장소성의 추상성까지도 드러내는 것이다.

비트라 하우스는 매우 협소한 공간으로 동양의 특유한 아우라를 지니고 있으며 현대건축과 일본의 전통공간을 조화시킨 공간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이 공간은 빛과 그림자, 오픈된 지하공간을 통해서 공백의 공간을 드러내며 종교적 느낌까지 준다.



<그림 7> 비트라 하우스 진입로의 모습

그의 공간은 여백에서 자연의 요소를 느끼며 공간 체험에서는 전통적인 사상들을 찾을 수 있다. 일본의 전통 미사상 중 유겐은 자연을 직, 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느끼고 내면의 자아를 발견하도록 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안도의 공간적인 측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를 도입하여 통상적인 것들을 이용자들이 느낄 수 있게 하였다. 그 요소들은 형태를 취할 수 없는 물이나 바람의 흐름과도 같은 것들로 공간에 대입하였고,

16)안도는 우회적이고 긴 미로와 같은 동선구성으로 인해 공간과의 연결 부분에 중점이 주어지게 되며 그러한 연결공간을 그는 "정념(情念)공간"이라고 정의한바 있다. 근대주의의 오용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자아의 회복을 위해 내부공간의 연결 공간 즉, 정념의 공간에서 자연의 변화를 느끼게 하는 방법과 동일한 것이다.(안도다다오, 김동영 역, 주택에 대한 사고, 2000, 국제, p.353.)

13)임채진 Op. cit., pp.57-58.

14)김영훈, 수영(물그림자)(The Museums and galleries by Tadao Ando), 세진사, 2003, p.78.

15)김영훈, Ibid, p.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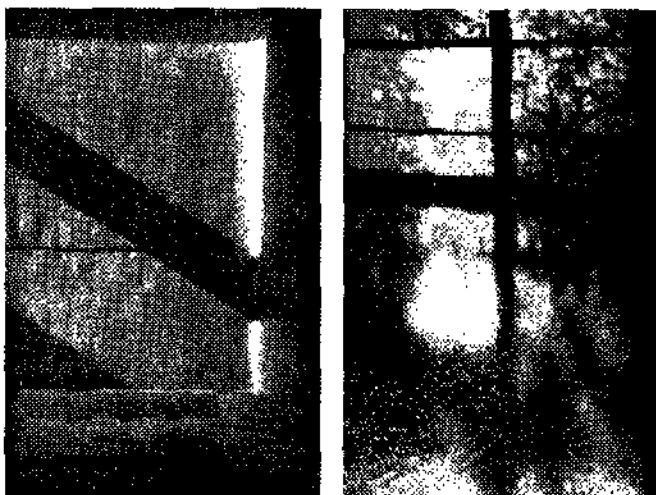
체험할 수 있도록 옛것들의 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 (4) 빛의 부유성

빛의 섬세한 조절에 의해 내부공간에 미묘한 음영을 도입하는 방식은 안도 타다오의 건축에서 특징적인 부분이다.<sup>17)</sup>

빛의 요소를 완충적인 요소로 사용하는 것은 전통공간에서 비추어진 창호지를 통해 여과해서 투과되는 것과 개구부의 틈으로 들어오는 것이 마찬가지로 보인다. 이는 빛을 보다 효과적으로 주고자 하는 실험적인 요소이며 미묘하게 들어오는 빛의 모습들은 그 퍼짐이 인간의 정신을 감싸는 공간으로 보인다.

안도의 작품 중 코시노 주택(Koshino House)은 일본의 장지문에 투사되는 빛의 음영의 효과를 재현해 주고 있다. 그는 비합리적이지만 의도적으로 다양한 동선을 제공하여 내부의 공간들을 연결하고 사람에게 다양한 장면들을 보여준다. 이때 내부에 절제된 빛을 동선 곳곳에 투영시켜 풍요로움을 제공하고 이용자의 머무는 공간에 쾌적함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방법은



<그림 8> 코시노 주택  
<그림 9> 쇼오지에 비친 대나무그림자

은 전통공간에서 빛의 농담(濃淡)으로 채색된<sup>18)</sup> 공간 연출법과 같은 양상으로 보인다. 내부공간과 외부 빛과의 완충적인 공간 기법은 물리적이면서 공간적이고, 인간의 경험을 하나의 요소로 넣어 인공적인 규칙성 속에 자연의 힘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다. 비슷한 것 같은 상자(블럭)의 윤곽 속에서 일어나는 내용의 역전, 그러한 역설적인 성격이 코시노 주택의 예술적인 특질을 만들어 내고 있다.<sup>19)</sup>

코시노 주택의 또 다른 특징은 벽의 틈새를 찢어 표현하여 면으로 분해되고 개방된 볼륨의 인상으로 풍요로운 자연과의 조화 속에 완벽한 기하학적 모더니즘의 조형으로써 일본의 소우주(小宇宙)적인 면모를 절실히 드러낸 작품이다.

#### (5) 영벽(領壁)<sup>20)</sup>의 은유성

일본의 독특한 문화인 장묘문화는 명상하고 묵상할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하고 계승한다. 이 공간은 하나의 의식적인 측면으로 보이며 과거의 것들을 드러내면서도 감싸주는 모습으로 비추어진다. 또, 과거로의 시간을 비춤으로써 앞으로의 미래를 다짐해보고 자아를 발견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안도는 이러한 시간의 되돌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건물의 현대성에 은유적으로 적용한다. 그 은유적인 방법으로 벽(壁)이라는 물리적인 것을 사용하여 외부의 환경을 차단하고 그 안에 생기는 또 하나의 다른 우주적 공간을 제시하는 것이다.<sup>21)</sup>

안도에게 있어서 영적인 공간을 구현하는데 벽이라는 요소는 유용한 도구임에 틀림없다. 그는 벽이나 프레임을 통해 유동성이 높은 공간을 조화시키고자 하였다. 플러머는 이러한 안도의 벽을 "보호막(Chraysalis), 변화를 담고있는 막"으로 정의하고, "몇 겹이나 싸여진 포장은 다양한 공간을 만들어 평면상 만다라가 미로처럼 연결된 것처럼 그 형태는 성스런 순례나 재생으로 인도되는 길을 연상시키며, 궁극의 은둔, 영원성의 감각을 발견하게 하여 인생을 느끼게 하는 생의 공간에서 죽음의 공간으로 이끄는 연락선"이라고 하였다.<sup>22)</sup>

이런 벽의 은유적인 모습은 물의 절(Water Temple Awaji island)에 잘 드러난다. 이 사찰은 기존의 낡은 전통사찰과 새롭게 법당을 신축하여 전통과 현대가 한 장소에 머무는 공간이다. 흰모래로 깔린 길을 따라 올라가면 언덕에 긴 콘크리트의 벽이 가로막고 있다. 일자형 직선과 원형의 두 벽으로 이루어진 좁은 길을 따라 통과하면, 하늘과 바다 그리고 산과 물위의 연꽃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 안도는 이 공간에서 동선의 변화에 따른 시각의 변화를 중요시 여겨 극적인 공간연출을 위하여 가벽을 세워 생각할 수 있는 동선을 유도한다. 이런 연출법은 자연과의 호흡으로 법당에 들어가기 전, 속세로부터 떼를 벗을 수 있는 공간적인 연출법으로 보인다. 법당은 수련으로 가득 찬 수면을 가로지르며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듯이 접근을 유도하고 공간을 안으로 삼입함으로써 자연을 침범하지 않는다. 벽과 지붕의 생략으로 수련이 핀 연못만이 있는 '형태없는 공(空)'의 모습이다.

계단을 내려와 법당으로 진입하게 되면 실내에서도 콘크리트로 구성된 공간을 마주하게 된다. 사각형의 법당은 원형의 공간과 맞물려 있고 일본식 격자그릴의 중첩과 공간적 수평적, 수직적 분할로 공간적 깊이를 형성한다.

법당 안에는 대지의 고저차로 인한 석양의 서쪽 빛이 측광으로 흘러들어와 주홍빛으로 칠해진 실내를 더욱 붉게 색을 퍼트린다. 연못 밖의 회색 모노톤 정적 공간, 수반의 자연을 지나 붉은 빛이 만들어내는 법당은 방문자가 일상에서는 전혀 체험할 수 없는 극적인 장면의 연속이다.<sup>23)</sup>

이 공간은 사찰공간만이 가지는 사상과 창조적 사유를 통해 외연적 공간을 창시했다. 또 의식적으로 공간의 체험을 유도함으로써 이용자가 스스로 어떠한 감정이나 이야기를 이끌어내게

17)강민구, 안도 타다오 건축의 기하학적 형태구성에 따른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론, 2002, p.34.

18)이호정, Op. cit., p.364.

19)황준, Op. cit., p.102.

20)황준, Ibid, p.119.

"영벽(領壁)"이란 안도 타다오가 개인의 영역을 만들어내기 위한 벽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는 음지 속에 숨어 수면을 향해 나타나는 의식적인 행위로 자신만의 공간을 성립하는데 적용되었다

21)안도타다오 Op. cit., p.118.

22)김동영, 안도 타다오의 작품에 표현된 일본 전통적 요소, 한국 주거 학회논문집, 제 17권 제6호, 2006. 12.

23)김주연, 빛이 빛는 공간시학 8: 정적 생명력, www.designflux.co.kr



하는 사색공간의 특징이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공간은 절제된 표현으로 차분함을 전달해주며 지상과 지하의 공간의 분류보다는 자연을 생각하는 안도의 철학과 성스러운 재생의 공간과 목상의 공간을 제공한다. 이는 마치 일본인들의 생과 죽음의 연계성이 있는 공간처럼 느껴진다.

### 4.3. 안도 타다오 건축의 사색 공간 표현 특성

안도의 공간들을 분석함을 통해 그의 건축에서 느껴지는 사색적 공간표현 특성은 아래와 같은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동선의 연속성이 전해주는 회유식 방식이나 미로식 방식은 공간의 전이성을 가장 많이 비추어주는 요소로써, 공간 안에 또 다른 공간을 제시하는 함축(含蓄)성이 있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공간의 외계성에서 비추어진 특징은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것에 있다. 현대에서 비추어지는 외계공간은 자연과 인간, 건물을 잇는 하나의 매개 공간으로 비추어지는데 이것은 전통의 관습적인 사상들을 형상화시켜 만들어주는 추상적인 모습으로 보인다. 이러한 공간적 특징을 정념(情念)공간으로 정의할 수 있다. 셋째, 극소의 표현성은 비움과 채움의 반복적인 것들과 미학의 요소로 여백(餘白)의 미를 강조한 공간으로 파악된다. 넷째, 빛의 부유성이 보여준 공간적 특징은 차단하는 방법의 차이로 음과 양을 바라볼 수 있는 음예(陰翳)<sup>24</sup>공간이라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벽의 공간이 보여준 은폐성은 공간적 특질로, 밖으로 보여 지는 공간보다는 명상과 목상을 위한 장소로 연계해 나가며 이를 위유(慰諭)공간으로 볼 수 있다.

<표 4> 일본 전통 건축의 요소로부터 사색 공간의 개념 추출

사색공간개념	작품	요소 추출	공간 요소	표현특성
동선의 연속성	명화의 전당	전통정원의 회유식 시간의 추이, 장면의 전이성	미로성, 심미성 함축성, 방향성	함축 공간
공간의 외계성	나오시마 현대미술관	수공간의 도입, 생명과 무생물의 경계, 장면의 전이성	절충성,연계성 요소성, 차단성	정념 공간
극소의 표현성	비트라	담의 간결함, 비움과 채움 수직적인 반복성	개방도,간결성 추상성, 비움성	여백의 공간
빛의 부유성	코시노 주택	빛의 부유성, 환기의 역할 개,폐쇄식, 매개의 역할	전이감, 투영성 빛의 강도,교류	음예 공간
영벽의 은유성	물의 절	전통과 현재의 공유성, 동양의 형태없는 공, 사찰공간의 공간성	차단성, 연계성 재생성, 시간성	위유 공간

#### (1) 함축 공간

함축공간의 중심적 역할은 체험의 관계성과 연결고리를 맺고 어디에 위치시키느냐에 따라 자연과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공간적 특이성을 보여준다. 일본의 자연관, 즉 차경수법과 회유식 정원, 일본전통공간에서 보이는 축소지향적인 태도는 은유적인 공간에 미로식 체험과 내부지향적인 동선을

유도함으로써 시선의 차단과 확장을 제시하여 이용자들에게 행위를 요하는 체험적인 요소를 유도한다. 그리고 그의 공간 안에는 소우주적 사상을 함축하여 공간을 표현하고, 벽과 프레임을 이용해 둘러싸여진 것과 개방되어지는 것들 사이에서 완충시켜 표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2) 정념 공간

정념 공간은 각 공간과 공간의 연계성을 비추어진 중정, 수공간의 도입, 보이드와 솔리드 된 공간의 중첩 등으로 공간을 분절하고, 이를 다시 공간과 이용자들을 연결해주는 의미 있는 공간구성을 보여준다. 시각적 제한에 의한 중정의 통합은 매우 높게 나타나며, 물리적인 동선은 제한적이지만 시선을 통해 주변의 여러 공간으로 다양하게 개방되고 중성적인 매개공간을 더욱 충실하게 함으로써 공간 전체를 더욱 극적인 연출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 표현은 무한한 균질공간에 단순히 위치함으로써 외부로 향해 열린 확장성을 제시하여 사색적 공간성을 체험한다.

#### (3) 여백의 공간

여백의 공간은 공간 안에 물리적 공간의 일부분을 생략하는 건축의 절제미를 추구하여 공간에 내면적 정신세계를 이끌 수 있는 공간연출법이다. 안도는 인간이 단순히 공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에 속해있는 이용자를 중심으로 비워진 공간과 관계 맺게 됨을 의미하였다. 이는 체험적 관계와 연결시켜 하나의 장(場)을 설치하고, 공간의 영역을 한정하여 장소로서 의미를 가지기 위한 공간의 위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 공간은 이용자에게 열린 공간을 제공해주며 확장하려고 하는 이용자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제시한다. 결국 인간의 오감을 통해 공간을 체험하게 하는 이용자의 움직임을 중시하는 것이다.

#### (4) 음예 공간

음예공간은 장지문의 투영성에서 보여준 빛의 음양을 '틈'이라는 방식으로 공간에 빛을 유입하고 재료들의 중첩 등으로 완화된 빛을 끌어들인다. 어두운 공간에서 음과 양을 부여하여, 공간에 부유감을 제공하고, 마치 공간에 사건의 개념을 끌어들이 투명한 경계, 외부와 내부의 연속된 공간, 다층적 환경특성을 제시하여 이용자의 참여과정을 통해 내면화되는 빛물성적 인지특성의 경험구조를 체험할 수 있는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 (5) 위유 공간

안도는 시간의 되돌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건물의 현대성에 은유적으로 적용한다. 그 은유적인 방법으로는 벽(壁)이라는 물리적인 것을 사용하여 외부의 환경을 차단하고 그 안에서 생기는 또 하나의 다른 우주적 공간을 제시하는 것이다. 의식적인 공간의 영역을 감싸 안아 은폐의 모습을 보이며 장소에 의해서 생겨난 정적인 공간으로 이용자들의 움직임을 안으로 유도하여 건물과 교류를 나눌 수 있는 수법을 적용한다.

24)음예공간이라는 명칭은 “은은한 촛불에 창호지에서 풍기는 동양적 취향의 빛의 유입”이 일본 전통 공간에 대한 유명한 수필 “음예공간에 찬(타니자키 준이치로)”에서 착안하였다. ( 강민구, Op. cit., pp.33-34)



## 5. 결론

연구를 통해 살펴본 안도 타다오의 작품들은 사색 공간적 특성을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표현 요소들이 공간의 기능성과 맞물려 공간에 융해되어 그 특성을 더욱 풍부하게 해 준다. 이상의 논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전통 건축에 나타난 사색공간과 안도 타다오의 건축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전통건축은 기본적으로 자연과의 일치를 생각하며, 인간의 감성, 특히 심리적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양하고 사색할 수 있는 공간적 특징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사색 공간은 전통에서부터 추출하여 재해석되어 현대 공간에 도입됨으로서 현시대에 잊혀져가는 전통성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인간의 감성에 새로운 공간적 인식을 주어 자기 내면적인 생각들을 밖으로 끌어낼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매개적인 요소로서 작용한다.

셋째, 안도 타다오는 일본 전통공간의 특성들을 이용해 건축을 구성해 왔으며 일본인으로서 자신의 내면에 자리 잡은 자연에 대한 태도를 구체화하여 특성들을 도입하고 있다. 이는 함축, 정념, 여백, 음예, 위유의 5가지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다.

① 함축공간은 동선방향의 유도에 따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공간적 특이성을 보여준다. 체험적 동기를 유발하고 프로젝트에 따라서 그 관계성은 단순하고 때론 복잡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② 정념공간은 각 공간을 분절하고, 다시 공간과 이용자들을 연결해주는 공간구성을 보여준다. 이는 마치 환경적 요소에서 비추어지는 것들을 지각의 정보를 통하여 이용자들이 물리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보여 진다.

③ 여백의 공간은 간결한 기하학적인 공간과 통합된 장식들과의 관계성의 위계질서를 보여주었고 이용자에게 열려진 공간을 제공해주었다. 여백의 공간은 이용자들의 움직임에 중시하고 있으며 현대건축의 디지털 건축의 역동성과는 분명 다른 선을 긋고 있다고 분석된다.

④ 음예공간은 공간에 빛을 유입하고 완화된 빛을 끌어들여 공간에 부유감을 제공한다. 마치 공간에 사건의 개념을 끌어들여 투명한 경계, 외부와 내부의 연속된 공간, 다층적 환경특성을 제시하여 이용자의 내면화되는 인지특성의 경험구조를 체험할 수 있는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⑤ 위유의 공간은 정적인 공간으로 이용자들의 움직임을 공간의 안으로 유도하여 체험하게 한다. 건물과 교류를 나눌 수 있는 수법을 적용하여 이용자들에게 자극과 감동의 공간을 선사한다.

이러한 다섯 가지 특징은 사색 공간 구성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공간의 환경과 물질적 요소에 의해 제공되어 이용자에게 의해서 직접 발견되어지며, 그 공간적 요소 안에

있는 가치와 의미로서 이용자의 활동과 행동에 가치를 부여하는걸 알 수 있다. 또한 이용자들은 움직임을 통하여 지각을 하고 공간의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여 이용자들이 공간의 환경 속에서 물리적 경계를 받아들이게 한다. 이것은 자기 중심영역의 확장 안에서 객관적인 요소로 공간을 통제하고, 개인적 활동을 확장시켜 동일 공간 내에서도 내·외부의 영역을 인지 요인을 통해 조절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결국 사색공간이란 내면의 성찰을 목적으로 하는 단순히 공간을 보는 것이 아닌 구상력을 위해 고안된 시각구조의 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공간적 성격은 현실적 삶에 긍정하는 안온함과 더불어 체험할 수 있는 관계적인 건축, 곧 정신을 참(眞)되게 하고 사색하게하는 일본건축의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조건이 일본 현대건축 공간 역시 사색이란 개념에 입각하여 계획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공간에서 사람들이 직접 체험하며 공간과의 상호작용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경험구조로서의 공간의 장치와 이용자들의 인식특성은 건축의 사색공간의 장소를 만드는 공간적 의미를 재생산하는 수단이다. 본 연구가 일본의 대표적 건축가인 안도 타다오의 일부 작품만을 사례로 언급한 것은 연구의 정량적 가치가 결여되었다는 점에서 한계점으로 남겠지만, 이후 다양한 후속 연구를 통하여 다른 작가 및 작품들에서 유사한 공간적 성격을 발견하게 되리라 확신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본 건축을 조망하는 또 다른 시선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작은 가치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1. 김영훈, 수영(물그림자)(The Museums and galleries by Tadao Ando), 세진사, 2003.
2. 안도타다오, 김동영 역, 주택에 대한 사고, 국제, 2000.
3. 이호정, 주거건축으로 본 근,현대 건축, 태림문화사, 2006.
4. 이희승,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2008.
5. 임채진, 건축의 누드작가 안도 다다오, 살림, 2004.
6. 황준 편저, 안도 다다오 그의 건축이야기, 미건사, 1993.
7. Ando Complete Works, Philip jodidio, TASCHEN, 2007.
8. 권영걸, 한·중·일 전통공간의 조영정신과 방법에 관한 비교연구, 고려대 박론, 2001.
9. 강민구, 안도 다다오 건축의 기하학적 형태구성에 따른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론, 2002.
10. 김동영, 안도 타다오의 작품에 표현된 일본 전통적 요소, 한국 주거 학회논문집, 제 17권, 제6호, 2006. 12.
11. 박세정, 일본적 공간개념의 분석에 의한 실내 공간디자인 방법에 관한 연구, 건국대 석론, 2005.
12. 백종현, 빌라 라로쉬-잔네르에서 나타나는 '건축적 산책'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 8권, 제2호, 1998. 10.
13. 송미경, 일본의 전통다실의 변천과 현대 화풍실내 양식의 변용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론, 2006.
14. 이진민, 일본인테리어 디자인과 한국인테리어 디자인과의 상관성, 월간 인테리어, 1999. 12.
15. 김주연, 빛이 빛는 공간시학 8: 정적 생명력, www.designflux.co.kr.

<접수 : 2007. 12. 31>